

'체감 악취' 대폭 줄었다

익산시, 시민 눈높이 맞춘 악취행정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시민과 환경전문가 눈높이에 맞춘 '체감악취' 저감 정책으로 악취 민원 대폭 저감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 한해 악취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25일 '익산시 악취대책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1년 악취행정' 보고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민, 사업장대표, 시민단체관계자, 환경전문가, 시의원, 관련공무원으로 구성된 '익산시 악취대책민간협의회'는 악취행정 추진과정을 간간히 점검하며 올 한해 '체감악취'가 대폭 줄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삼한 악취로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전년 하절기와 달리 8월 민원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쾌거를 거두었

으며 악취 설문조사에서도 55% 이상의 시민들이 "과거에 비해 악취가 줄었다"고 응답한 반면 "줄지 않았다"는 답변은 12.4%에 그쳐 시민들이 느끼는 악취저감도는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악취대책민간협의회 위원들도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결과는 악취발생사업장 집중 단속과 지원, 그리고 악취 발생원 제거(왕궁 현업축사 매입) 등 악취저감을 위한 행정의 다각적이고 세밀한 추진으로 이루어낸 성과로 보인다.

시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1~2사업단지내 사업장을 일제 점검하여 미신고된 사업장 확인 공휴일 심야시간대 악취를 무단 배출여부를 단속했다. 특히 관리지역 외 지역에서도

악취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업장이 없도록 하절기 6개월동안 24시간 밤낮으로 순찰했다.

25개 사업장에서 405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은 57개 시설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한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악취저감을 위해 시설개선을 하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억8백여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도 경감시켰다.

또한 악취 민원의 주요 유형인 축산 악취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악취 발생요인을 찾아내어 집중 개선하도록 시정조치했다.

왕궁지역 현업축사 매입에도 총력을 기울여 올해 13개 농가 20,680두를 매입하여 총 토지 매입 계획량의 81%인 485,141㎡를 매입 완료한 상태이다. /익산=이득훈기자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안부 인증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군산시,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군산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국민행복민원실'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세무서 등 민원실의 내·외부 환경,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

공모방식으로 진행된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은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 및 전문가 현지점검, 체험평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며 올해는 18개 기관이 국민행복민원실 인증을 받았다.

시는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민원창구별 색상을 부여해 민원창구 안내 표지의 식별이 쉽도록 하고, 민원인 대기 공간과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해 민원실을 더욱 쾌적하고 편안

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또한 군산 추억가뭄 포토존 북카페, 정보검색코너, 건강 체크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 입산부, 노약자 등 사회 배려대상자 전용 창구인 아름다운 배려창구, 높이가 다양한 민원 서식대 설치, 휠체어와 보청기 비치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는 민원 서비스를 선정, 그 지위를 3년간 인정해 주는 제도다.

다불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인 만큼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하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민원실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

시의회, "단기 일자리 늘어 질적 악화돼 또다른 고용위기"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25일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중대 의원은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동종업종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주력 산업인 자동차, 조선산업의 붕괴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지난 3년 10개월간 1,418억 원의 예산으로 12만 2,92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주고 지역의 고용안정의 성과를 거두는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붕괴된 산업의 재생과 제조업 노동자들의 직업전환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

정된 기간이 너무나 짧을 뿐 아니라 인구 유출로 지난 5년간 1만 1,500명이 감소했으며 그중 청년인구가 전체 유출인구의 78.9%에 이르러 지역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어 "군산시의 현재 일자리 양적 측면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장기근속의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크게 늘어 지속가능성, 임금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 악화되어 또다른 고용위기"라고 강조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장기화와 맞물려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소상공인마저 흔들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용지표는 전국 평균 60.4%에 크게 못 미치는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 162위로 여전히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실업률 역시 2.9%로 전북 14개 시군 중 최하위"라고 덧붙였다.

나중대 의원은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국민의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기동과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주축으로 하는 전기차 클러스터가 분계도에 올라 안정적으로 고용창출의 기반을 갖출 때까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전라북도지사에게 송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 성료

군산시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한마음축제가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모범아동에게 시상상 시상장, 국회의원상, 교직원상을 수여해 격려했으며, 군산 사회복지장학회 장학금을 전달해 아동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한 전라북도 군산의료원(원장 김경숙)은 1천만원 상당,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최병집)는 5백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도움을 줬다.

채현주 지역아동협의회장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아이들에게 포옹과 장학금으로 용기를 주는 기회가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기자

군산시, 2022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는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26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지역은 만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2년도 장애인일자리사업 모집 인원은 일반형일자리 71명(전일제 52명, 시간제 19명), 복지형 일자리 106명, 특화형 일자리 6명으로 총 183명이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된 참여자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는 관공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서 행정보조업무 수행하며 정일제는 주5일 40시간, 시간제는 주5일 20시간 근무한다. 복지형 일자리는 지역 및 관공사에서 환경정리 등을 수행하며 주14시간 월 68시간을 근무한다. /군산=한경봉기자

익산시,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익산시는 아동학대 예방주간을 맞이하여 25일 아동학대예방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익산시청, 익산시의장, 익산경찰서,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민간중심이던 아동 보호 체계가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된 지 1년을 맞아 열리는 뜻깊은 행사다.

그동안 시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선도지역으로서 지난해 10월 아

동복지법 개정 이후로 아동보호전문팀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유튜브 및 세이프고지서 등을 활용한 아동학대에 방 홍보 등을 추진하여 관내 아동들의 권리 보장에 앞장섰다.

또한 익산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익산시 교육지원청, 익산경찰서,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대응과 현장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표창했다. /익산=이득훈기자

익산시, '다이어트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 나서

익산시가 관내 기관, 기업 및 일반 시민들이 지역업체와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인 다이어트(착한페이) 연동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구매 확대에 따른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 및 지역업체의 판로 확대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다이어트 공공마켓' 플랫폼을 구축 계획을 25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익산시 홈페이지와

지역화폐인 다이어트(착한페이)앱과 연동해 구축한다. 익산시 소재의 지역업체가 익산시의 지역업체 등록 승인 후 업체의 정보 및 제품 등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관내 공공기관 및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익산시 홈페이지나 다이어트(착한페이) 어플에서 해당되는 여러 업체들 중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지역업체들의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내 기관에서

견적을 요청하는 경우 관련 업체들이 견적을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견적요청 게시판도 운영할 예정이다.

업체를 이용한 후 이용자들이 이용 후기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업체 간 품질 및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다이어트 공공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관내 기관 및 일반시민들에게는 보다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전망이다. /익산=이득훈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